

전남도, '지역사회 치매 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치매극복의 날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치매 안심마을 운영·폐교 활용 치매쉼터 설치

전남도는 지역사회 치매 관리사업을 추진한 공로로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는 전남형 치매 안심마을 운영과

폐교 활용 치매쉼터 설치를 지역사회 치매환자와 가족 중심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3월부터 도내 65개 치매 안심마을을 지정해 마을운영위원회 구성과 치매파트너 양성, 프로그램 운영, 치매 가구 가

사자동잠금장치 설치 등을 진행했다.
또 문을 닫은 폐교를 치매쉼터로 설치해 올해 가을부터 치매환자 인지 재활프로그램, 카페운영, 가족지원, 치매 인식개선, 주민 홍보교육을 한다.
전남광역치매센터는 치매 극복 비대면 주간 행사를 9월 한달 간 개최한다.
주간 행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화상채팅 및 퀴즈 프로그램, 치매 극복 홍보, 치매 인식개선 창작시 공모

전, 치매 극복 염서발송 등 다양한 비대면 행사를 진행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치매안심마을과 폐교 활용 치매쉼터는 치매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가까이 다가가는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양한 치매 관리 콘텐츠를 개발해 치매 인식개선 확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강진 군동면지사협, 무료 이불세탁 사업

12월까지 매주 2~3곳 돌며 서비스

강진군 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업무협약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이불세탁사업을 추진한다.

무료 이불세탁사업인 '뽕송뽕송 이불세탁 해 드려요' 사업은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2~3곳의 마을을 돌며 이불세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고령·장애·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이불 빨래가 어려운 85가구에 이불 수거부터 세탁, 건조, 배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군동면지사협은 지난 15일 안풍 마을 빨래방에서 군동면(면장 강준혁), 군동면이장단(단장 김은주), 빨래방사업단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쉼애틀리(대표 김영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쉼애틀리는 2020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돼 군동면 안풍 마을에서 빨래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동면이장단 김은주 단장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이불 수거부터 배달까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이장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윤호경 위원장은 “민관이 협력해 지역 복지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동면지사협은 아름다운 동행 '함께해서 행복해' 같이되어 고마워'를 슬로건으로 매주 어르신 가정에 밑반찬을 배달해주는 '흙뻘 어른 건강 밥상 나눔 사업', 매월 거동불편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이발을 해주는 '찾아가는 거동불편 대상자 이발용 사업', 마을 단위로 주민의 가정을 방문해 이발, 염색을 해주는 '찾아가는 뷰티풀 복지사랑방', 명절에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과 청장년층 가정에 명절 음식을 전달해주는 '명절 음식 나눔 사업' 등 찾아가는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여주시 “을 추석은 영상통화로 가족의 정 나누세요”

생활지원사 219명, 어르신 영상통화서비스 지원 나서



여주시가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 을 추석 명절 귀성과 역귀성을 자제하는 전 시민 이동 멈춤 운동에 나선

가운데, 어르신들이 가족과 영상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섰다.
21일 여주시에 따르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타 지역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영상통화로 달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주시노인복지관 등 4개 수행기관 219명의 생활지원사가 맞춤형 돌봄 활동을 하면서 원하시는 어르신에게 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족과 영상통화를 한 학동에 거주하는 이** (82세) 어르신은 “핸드폰으로 얼굴 보며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다”며 “을 추석에는 못 본다고 아쉬웠는데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니 서운한 마음이 가신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긴 추석연휴 동안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어 생활지원사들이

어르신들에게 우선으로 안부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어르신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잘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시는 기존 6개 돌봄 서비스를 2020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해 총 43억 원의 사업비로 4개 권역의 독거노인, 고령부부, 조손가족 등 3,500여명의 어르신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여주시는 영락공원을 찾는 성묘객의 안전을 위해 을 추석 추모의 집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2일간 추모의 집 제례단과 성묘객 휴게실을 전면 폐쇄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영상 추모 등 온라인 참배도 가능하다.

동부취재본부정선용기자

순천시치매안심센터,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치매극복의 날 맞아 4곳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순천시는 지난 17일 치매안심마을 4곳(별량면 용두마을, 해룡면 서가마을, 도사동 월곡마을, 서면 판교마을)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치매안심마을과 인근마을 주민이 치매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뜻을 합쳐 치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다중이용시설 집합이 금지됨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말초신경자극과 두뇌회전에 도움이 되는 자가 학습 도구를 제공하여 가정에서도 치매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순천시치매안심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외부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치매극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어르신과 지역 주민이 더불어 사는 지역

사회를 조성하는 것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강진=김영일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